印歐語比較言語學의 몇 가지 課題

—母音體系와 laryngeal theory를 中心으로—

金 芳 漢

從來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 再構된 基語는 그 性質上 主로 現存하는 諸言語 혹은 記錄을 남겨주고 있는 死語等의 分裂直前의 것이라 하겠는데 그것은 먼저 比較對象인 資料가 어디까지나 文獻上의 實證에 依存한 것이고 여기 의해서 推理된 結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文獻的 資料를 가장 確實한 그리고 唯一한 根據로 삼고 있는限 이 線을 넘어서 생각해야할 경우에는 難點이 많았고 所謂 祖語의 全體的인 言語構造를 把握하기 어려웠던이 事實이다. 그러나 印歐語比較言語學에도 構造主義의 새로운 影響이 미치게 되어 여기 새로운 方法論的 檢討가 싹트기 시작한다. 먼저 下位 諸言語의 制約을 떠나서 祖語의 言語構造를 大膽하게 假定하고 이렇게 해서 假定된 言語構造에서 밑으로 歷史를 더듬어가려고 한다. 여기 한 例를 보기로 하자. 三人稱單數의 現在形인 be動詞는 各言語에서 다음과 같다:

Skt. ásti, Lith. ẽsti, Gk. ésti, Goth. ist

여기서 Skt.a는 PIE (Proto-Indo-European) *e에서 變化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各語形을 서로 比較하여 일단 *ésti로 再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滿足하지 않는다. 祖語의 基語는 單音節인 *CeC-로 假定되고 있는데 *és-가 여기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és-의 é-앞에 子音을 하나 더 補充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ʔes-로 再構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理論上의 補充이 Hittite語에서 實際로 立證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傾向은 Meillet以後에 활발해진 것 같고 特히 Saussure가 所謂 A, O의 存在를 理論的으로 豫想하고 이것이 Hittite語의 發見과 더불어 實證된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러한 潮流를 타고 展開되고 있는 것이 特히 近來의 印歐祖語에 있어서의 母音體系에 關한 硏究라 할 수 있다. 印歐祖語의 母音硏究가 어느面에서는 各學者에 따라서 實로 걷잡을 수 없을 程度의 結果를 가져오고도 있으나, 이러한 事實은 一面 方法論的 모색과 그 發展의 結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硏究傾向은 近來 Benveniste, Kurylowicz, Martinet, Lehmann等에 의해서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다.

少壯文法學派以前 印歐祖語에 豫想된 母音 i,u,a가 所謂 口蓋音化法則과 母音交替研究에 의해서 e,o,a로 是正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들中 먼저 問題된 것이 a이다. 첫째 r̥,l̥,m̥,n̥,(sonant) 및 ə의 推定에 의한 a를 除外하면 文獻期以後의 諸言語가 보여주는 a의 分布는 極히 制限된 範圍에서만 나타나기 대문에 元來의 a의 存在를 의심하게도 된다. 둘째로 a는 母音交替에서 e/o와 같은 機能이 極히 弱하고 大衆的인 性格의 語彙에 나타나고 있는 點이 指摘되고 있으며 그것도 擬聲語에 흔히 나타날뿐 그밖에는 겨우 몇가지 孤立된 낱말——그것도 主로 語頭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대문이다. 그러므로 母音a가 있는 語彙는 e/o의 交替가 보여주는 語彙에 比해서 比較的 새로운 層에 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特히 H. Krahe에 의해서 代表되는 여기 關한 考證에서도 이 事實이 實際로 證明되고 있다.[1] 그밖에 a의 相對的年代를 考證하여 印歐語族이 最初 東歐의 어느 地域에서 漸次 西方으로 移動하여 그 言語를 使用하는 民族이 農業에 從事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옛 母音交替現象이 끝난 것으로 보는 見解에서, 牧畜을 主로한 時期부터 固定된 農業生活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a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結論짓고 a의 分布에 의한 傳統的인 見解를 다른 角度에서 證明하려고 한다. 그리고 a의 存在를 否認하려는 有力한 根據의 하나로서 a가 ei/oi/i와 같은 交替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點을 들고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a의 存在를 想定하는 根據는 少數의 그것도 比較的 좁은 範圍의 分布밖에 없는 語彙에 依存하고 있다. 그리고 이 語彙도 위에 든 Krahe의 結論과 같이 印歐語族의 全文化圈에서 時間的으로 새로운 層에 屬하는 것이라 하면 理論的으로나 資料上으로나 *a의 全面的인 否定의 試圖가 全的으로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도 보겠다. 그러나 Kurylowicz는 獨自的인 類推說을 基礎로 母音交替의 現象을 再檢討하여 a를 가진 語彙를 印歐語群(南歐群)과 歐洲群(南北歐群)으로 나누고 後者는 文化的交流等의 事情도 있고 옛 a를 證明할 能力이 없으며 또한 前者에는 動詞를 包含하여 그 以上 分析不可能한 孤立된 낱말이 많아서 印歐語의 基礎語彙에 屬하는 것이 없기 대문에 a의 全面的 否定의 傾向은 e/o와 平行的인 a/o의 交替가 證明되지 않는限 變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2]

母音o는 所謂 北方群에 있어서의 o/a의 混同 또는 Tochara語의 一部에서 볼 수 있는 o>e의 變化는 있다할지라도 母音體系中에 o가 없는 語派가 없고 祖語에 있어서의 存在도 傳統的으로 의심할 餘地가 없었다. 그러나 Hittite語의 發見以來 이 見解는 動搖하기 시작했다. 그 理由는 印歐語族中에서 最古의 言語로 본 Hittite語에 o가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再構不可能의 o도 있으나 이것을 除外하면 o는 e/o의 關係에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e/o의 交替의 原因을 考察하는데 從來 두가지 立場이 있다. Brugmann은 이 e/o/零의 3段階를 豫想한데 對해서 Saussure는 여기 反對하고 o는 e의 變異에 不過

[1] 여기 關해서는 H. Krahe, *Sprache und Vorzeit*, (Heidelberg, 1954) 參考.
[2] J. Kurylowicz, *L'apophonie en indo-européen*, (Wroclaw, 1956).

하다고 했다.[3] Meillet 도 이 見解를 忠實하게 繼承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對해서 段階의 差異를 認定하고 그 原因이 accent 에 있다는 主張이 有力해졌다. 먼저 Hirt[4] 는 accent 가 作用하고 있던 어느 時期가 지나서 accent 를 消失한 e 가 弱化된 e 혹은 「零」이 되지 않았던 時期에 o 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accent 說에는 두가지 問題가 있다. 하나는 印歐語의 accent 가 原來 高低의 自由 accent 라는 說明하기 困難한 點이다. 그리하여 Lehmann 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原始印歐語에는 accent 가 音韻的이 아닌 自由高低의 性質의 것이었으나 그 初期에 音韻的인 것으로 變하고 그 時期에 e/o 의 交替가 일어나며 또 한편에서는 이것과 共存하여 強弱의 accent 가 音韻的인 것이 되어서 e>o 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péte/〔péte〕>/pèté/〔pòté〕.[5] 이러한 見解는 먼저 Hirt 의 難點을 解決하는 方法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共存을 認定하지 않고 祖語時代에는 強弱 accent 가 主가 되어 母音交替의 現象을 일으키고 이어서 이때문에 弱化된 母音이 形態論的 理由로써 消滅하지 않거나 혹은 다시 復活한 것이 뒤에 o 가 되었으며 Sanskrit 나 Greek 에 보이는 長短의 accent 는 後期祖語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難點을 克服하기 위해서 다시 e/o 의 問題를 들고 나선 것이 Kurylowicz 이다. 그는 L'accentuation des langues indo-européennes (1952)에 이어서 L'apophonie en indo-européenne(1956)를 發表하고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 가장 어려운 難點에 對해서 대담하게 육박한다.

筆者가 Kurylowicz 에게 興味를 느끼는 點의 하나는 Lehmann 과 더불어 構造主義的 方法論을 어떻게 또 어떠한 點에 導入하는가에 있었다. 그의 方法論은 L'apophonie 의 Prolegoménes 의 Note liminaire 에서 展開된다. 먼저 形態的 體系의 그 要素間에 存在하는 一方依存關係를 強調한다.(一方依存關係는 Hjelmslev 에 의하면 determination 에 一致한다). 그는 이 關係를 fondement 이라고 부른다. 여기 A,B 두 形態素가 있다고 하고 A 의 形態와 機能이 B 의 그것을 豫想할 때 (그의 反對는 成立하지 않는다), A 와 B 사이에 이 關係가 存在한다. 이 경우 그는 A 를 一次形態(혹은 forme de fondation)라 하고 B 를 二次形態 (혹은 forme fondée)라고 한다. 그리고 이 兩形態의 關係를 支配하는 原理가 A:B=A':B' 와 같은 「比例性」과 다음에는 그의 印歐語 accent 硏究에서 利用되고 있는 A,B 사이에 最大距離가 있다고 보는 「分極性」이다. 어느 한 複合形態가 다른 單一形態로 바뀌는 것을 說明하는 그의 類推에 關한 첫 法則은 前者에 의해서 理論化되고 最古形에서 最新形으로의 歷史的인 變化를 說明하는 것이 後者의 原理인 것이다. 그의 理論이 이 두가지 原理의 相互關係에 의해서 展開되고 있는 데 먼저 注目된다.

---

[3] F. de Saussure, 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es voyelles (Recueil des Publications Scientifiques de Ferdinand de Saussure, Heidelberg, 1922), pp. 48—66.

[4] H. Hirt, *Indogermanische Grammatik II.* Der Vokalismus, V. Der Akzent.

[5] W.P. Lehmann, *Proto-Indo-European phonology* (The Univ. of Texas Press, 1952), p. 14.

다시 本論에 돌아가서 그의 原理의 一例를 보면 그는 e/o의 accent와의 直接的인 因果關係를 否定하고 o fondamental이 아니라 各言語의 構造가 가지는 形態的 再整理에 의해서 얻은 o階梯의 fondé의 特徵을 發見하려는데 全力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kwer>kwor > kwr의 3階梯와 pokw>pokw>pekw와의 各階梯間의 類推關係를 考察하고 다시 中間의 弱階梯를 中心으로 하여「分極性」原則에 의해서 o階梯가 下位諸言語에서 擴大해가는 것을 보려고 한다.

새로운 言語의 發見과 方法論的 發展에 의해서 印歐語比較言語學은 하루 하루 그 視野를 擴大해 가고 있으며 過去의 知識을 새로운 角度에서 再檢討하고 있다. 그中에서 가장 注目되는 部分의 하나가 母音研究이다. 여기 構造主義의 理論이 導入되어 laryngeal theory이 새로운 角度에서 考案되고 있다. 다음에는 laryngeal theory에 關한 研究를 全般的으로 考案하고 最近의 새로운 說과 새로운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Laryngeal theory는 初期段階印歐祖語의 母音體系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이 母音體系에는 所謂 laryngeal이라고 불리우는 IE諸方言에 直接的인 反射形이 없는 몇가지 音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IE諸方言에 있어서의 laryngeal의 證據로는 다른 PIE音韻의 反射形인 音韻에 의해서만 推理될 따름이었다. 例컨데 Gk. *δῶρον*(=gift)에서 長母音 o는 pre-IE에서 母音과 laryngeal이 結合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φώρ*(=thief)에서는 先行母音의 消失로 短母音이 長音化하여 長母音 o가 생겨난 것이다. laryngeal音韻은 PIE의 다른 音韻의 反射形과 合流되어 버렸기에 때문에 laryngeal이 IE音韻이었으리라는 可能性은 IE音韻史研究에서 比較的 뒤늦게 認識되었다. 그러나 Kurylowicz가 Hittite語에 있어서의 laryngeal의 反射形을 指摘한 뒤에 비로소 印歐語學者들이 laryngeal theory를 一般的으로 받아드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Kurylowicz가 Hittite語의 h 혹은 hh가 IE laryngeal로 생각되는 것에 對應하는 것을 暗示한 뒤 20餘年동안 이 說을 立證·實驗해보려는 수 많은 研究가 나타났고 또한 Hittite語自體內에서 laryngeal에 關한 더 많은 證據를 發見하려고 努力했다. 또 어느 學者는 IE方言에서 흔적을 찾으려고했다. 이러한 研究에서 먼저 가장 問題된 것이 laryngeal의 消滅時期였다. laryngeal의 消滅時期가 밝혀지지 않는限 laryngeal theory를 理論的으로 說明하기가 대단히 困難해진다. 따라서 一部에서는 laryngeal theory를 全面的으로 否認하는 學者도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發見된 證據에 의하면 그렇다고 이 說을 全的으로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Laryngeal theory는 最初 두가지 相異한 說에 의해서 發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Saussure는 PIE의 母音交替의 研究에서 그의 說을 發展시킨다. Gr. *ἵστᾱμι*: *στατός*의 相互母音交替가 *μείθω*: *ἔπιθον*과 平行하기 때문에 그는 語根構造의 類似性을 假定하게 되고 또 *στᾱ*-는 /steA-/의 反射形이라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Saussure의 基本的인 假定은 다음과 같다. (*σ*)*ἔχω*, *λείπω*, *ἵστᾱμι*와 *ἔσχον*, *ἔλιπον*, *στατός*사이에 보이는 類

似性——다시 말하면 外見上 相異한 構造의 形態素에서 音韻의 變異가 類似한 것은 原來는 類似한 構造의 形態이 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Saussure의 생각은 Hittite語에서 그 證據를 發見함으로서 支持를 얻게 된다.

다음 說은 IE와 Hamito-Semitic語의 共同起源을 主張하는 Möller에 의해서 提示되었다. Möller는 PIE와 Hamito-Semitic語의 여러가지 對應例를 暗示하고, PHS音韻體系에 laryngeal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이 laryngeal을 Saussure가 假想한 消滅된 pre-IE의 어느音韻과 對應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Euro-Hamito-Semitic라는 見解를 主張하게 된다. 그러나 Möller의 이러한 說을 支持하는 學者는 오늘날 한사람도 없다.

最初부터 laryngeal theory에 關한 見解에는 여러가지 差異가 있었다. 母音交替에 있어서의 類似性에 立脚한 Saussure의 基本的 假定이 PIE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變化에 適用되었을 때 Möller와 다음에는 Cuny는 PIE에 laryngeal이 두개가 아니라 세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ἔχω*와 *λείπω*의 母音交替關係가 *τίθηωι*뿐만 아니라 *ἵσταμ*과 *δίδωμι*와도 平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相異한 母音이 셋이 있다고 해서 세개의 laryngeal을 假想하는데는 아직도 意見이 一致하고 있지 않다. 어느 印歐語學者는 *δοτός*의 o는 隣接 laryngeal에 의해서 變化한 것으로 보며 또 어느 學者는 그것은 類推的 變化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Möller以後 大部分의 印歐語學者들은 A,ʔ,γ라는 세개의 laryngeal을 認定하고 있다. 또한 Saussure와 같이 Q,A̯ 두개만을 認定하는 學者도 있다.

Laryngeal theory에 關해서 Hittite語가 重要視되는 것은 PIE에서 laryngeal이 理論的으로 假想되는 곳에 여기 對應하는 Hittite語의 形態素에 laryngeal의 反射形으로 생각되는 音韻이 實際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Saussure說을 中心으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PIE型에서 laryngeal을 생각하게 된다.

A. 그가 假想한 母音交替에 나타나지 않는 長母音은 laryngeal의 消滅에 의해서 先行短母音이 長母音化한 것으로 본다 : stā-</steA̯-/(Mém. 135). 그런데 이경우 여기 對應하는 Hittite語의 形態素에서는 laryngeal이 아직 消滅하지 않고 先行母音이 短母音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例를 들면 Lat. pāscō의 長母音 a가 Hittite語에서는 pa-ah-ša-an-zi와 같이 短母音으로 나타나며 laryngeal의 反射形으로 생각되는 h가 짧은 a뒤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例도 있다 : Goth. mēl: Hitt. me-e-hu-e-ni.

B. Saussure가 假想한 長 resonant인 ī, ū, r̥̄, l̥̄, m̥̄, n̥̄는 後行하는 laryngeal의 消滅에 의해서 짧은 resonant가 長音化한 것이다. 이경우에도 Hittite語에서 위의 例에서와 같은 現象이 보인다. Latin의 plānus (flat)는 Hittite語의 pal-hi-i-iš(=broad)에 對應한다.

C. 이러한 長 resonant는 Skt. seṭ- 語根에서 (bhávi-tum, bhū-tá; vámi-ti, vān-tá; váni-tā, vā-tá) 이루어진 零階梯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形態에 立脚해서 Saussure는 seṭ- 語根이 resonant 즉 laryngeal로 끝나는 PIE語根에서 發展한 것으로 假想한다 : Skt. bhavi- 는

PIE/bhewX-/, Skt. vami- 는 PIE/wemX-/, Skt. vami- 는 PIE/wenX-/ 에 對應한다고 본다. 이런경우 Hittite 語에서도 set- 語根語에 laryngeal 가 보인다. Gk. περάω: Hittite pár-ha-an-zi.

D. Saussure 는 또한 모든 IE 語根에는 基本母音으로 e 가 있었던 것으로 假定한다. 基本母音인 e 가 假定되는 形態에서 PIE a 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Gk ἄγω 와 같은 語根母音은, Saussure 에 의하면 laryngeal 에서 派生한 것 혹은 laryngeal+母音에서 派生한 것이다 : /Ạeg-/Ạ>/ag-/>/ag-/. Gk. ἀργής: Hitt. har-ki-iš.

Saussure 의 위와 같은 理論的인 假定은 Hittite 語에서 그 證據를 發見함으로서 立證되었을뿐만 아니라 祖語의 再構自體가 從來의 線을 훨씬 넘어선 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Hittite 語에서 立證할만한 資料를 發見했다고 해서 그것은 決코 滿足할만한 程度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問題가 解決되지 못하고 있다.

Hittite 語에 laryngeal 의 反射形을 維持하고 있는 形態素의 數가 적다는 것만이 缺點이 아니다. Hittite 語의 orthographic system 自體에 또한 많은 問題가 內包되어 있다. Couvreur 는 Hittite 語의 表記法에서 h 와 hh 를 調査하여 h 는 n.m,l,r,š 와 같이 e 뒤에 오는 點을 지적한 바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h 와 hh 가 laryngeal 의 差異라기 보다는 先行母音에 따라서 區別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一面 Sturtevant 는 Speiser 와 더불어 h 는 voiced velar 혹은 post-velar spirant 이고 hh 는 h 에 對立하는 無聲音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느 假定도 實際로 立證하기 困難하다. 萬一 Hittite 語에서 h 를 p,t,k 와 더불어 obstruent 의 하나로 分類했다면 有聲·無聲을 아미 區別했을 것이고 또한 h 를 l,r,m,n,š 와 더불어 resonant 로 分類했다면 有聲·無聲의 區別을 짓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Hittite 의 表記法과 더불어 音韻論的인 證據에 立脚해서 더 한층 充分히 硏究가 이루어진 뒤에야만 비로서 解決될 것이다. Hittite 語에는 ehh: eh 혹은 ahh: ah 의 對立이 없고 다만 ahh: eh 만의 對立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表記法的 變化에 의해서 相異한 laryngeal 을 區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全的으로 是認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Hendriksen 은 Hittite 語에서 laryngeal 의 反射形은 어느 音聲的 環境에 限해서만 維持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한바 있다. 우리가 Hittite 語의 낱말가운데서 laryngeal 을 期待해야할 資料를 調査해 보면 實際로 laryngeal 은 다만 r,l,m,n,y,w,š 等의 앞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環境에서는 laryngeal 이 消滅했다고 보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推理는 Pedersen 에 의해서 支持되고 있다. Pedersen 에 의하면 Hittite 語에서 原來 t 와 i 사이에 laryngeal 이 있었던 形態에서는 t 가 i 앞에서 z 로 變化하지 않았음을 考察했던 것이다 : ti-it-ti-an-za<*ti-tA-iya, cf. Gk. ἵστᾱπι, Hitt. tu-uz-zi-iš.

위와 같은 laryngeal theory 에 對해서는 學者間에 異說이 많으나 그것을 要略하면 大體로 세가지로 區別할 수 있다. 첫째 laryngeal 說을 全面的으로 否認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學者는 漸次 줄어가고 있으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Hittite 語의 根據를 不充分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920—30年까지에 發表된 Hittite 語의 資料는 事實上 不充分한 것이었다. 그러나 利用할 수 있는 Hittite 語의 文獻에서 漸次 立證力이 強한 證據가 많이 發見되고 또한 그 立證力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둘째는 Brugmann 이 PIE 에 認定한 音韻體系 위에 laryngeal 을 附加하는 것이다. 現在 Benveniste, Couvreur, Cuny, Hendriksen, Kurylowicz, Messing, Pedersen, Sommer 等 大部分의 印歐語學者가 여기 屬한다. 이들은 Hirt 와 Brugmann 의 音韻體系를 大體로 그대로 維持하면서 laryngeal theory 에서 밝혀진 資料面에서 修正을 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長 ṛ 는 ṛ 혹은 zrə 로 分析되지 않고 ṛX 로 보게된다. 또한 原來의 ā 는 aA 로, a 는 Aa 로, ēi 는 eʔi 로 分析되는 것이다. 그러나 ē 를 eʔ 로 보는 것과 같은 再構를 위한 옛 表記法은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셋째로는 Brugmann 이 再構한 音韻體系보다 더 앞선 PIE 段階에서 laryngeal theory 를 假定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見解와 前者의 見解間에는 많은 論爭이 展開되고 있으나 前者의 경우 大部分이 Indo-Hittite 를 假定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對해서는 여기서 詳細하게 說明할 여유가 없으나 laryngeal theory 를 考察함에 있어서 Indo-Hittite 假說을 위한 音韻形態的인 論證은 考慮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이 部類에 屬하는 學者들도 Brugmann 의 音韻體系를 正確하게 그대로 維持하고 있음은 勿論이거니와 여기에는 Sturtevant, Austin, Schwartz, Smith 等이 屬한다. 그들에 의하면 laryngeal 은 이미 pre-IE 에서 消滅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데는 여러가지 困難한 問題에 當面하게 된다. 첫째 laryngeal theory 에 의해서 說明되던 몇가지 어려운 現象이 하나 혹은 두 方言에 制限되어 나타난다. 그 가장 좋은 例가 Indo-Ir. 의 有氣無聲停止音의 경우이다. 이들 印歐語學者는 그러한 現象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즉 PIE 에서만 變化가 일어났고 모든 方言에서는 實際로 그 變化의 效力이 消失되었다. 그리하여 PIE 의 p,t,k 가 無聲 laryngeal 앞에서는 ph, th,kh 로 變化했다고 본다(ph,th,kh 에 對한 證據는 Ind-Ir 에서만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Sturtevant 는 有氣無聲停止音을 이렇게 說明하지만, 그는 PIE 의 變遷이 PIE 의 各分派에서 個別的으로 消滅했다고 본다면 다른 說은 弱化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說明으로 그는 hy,hw,hr,hl,hn,hm 等 여섯 音韻을 PIE 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音韻에 對한 證據는 原來 한 方言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PIE 에 保存되어 있던 몇가지 音韻이 모든 方言에서 消滅되었다는 假定을 否認하면서 모든 方言에서는 全部 消滅되었지만 오직 한 方言에서만 殘存하고 있는 PIE 의 여섯 音韻의 存在도 의심하게 된다.

다음에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laryngeal 을 假定하게 되는 證據을 要約해서 考察해보기로 한다.

(A) IE 의 ə 는 laryngeal 의 反射形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다.

a. IEə 로 再構되는 것이 同一語源의 Hittite 語 낱말에서 h:hh 에 對應한다.

b. 여기 의해서 오랫동안 의심해오던 Skt. 5,7,8,9 動詞類間의 關係를 說明할 수 있다. seṭ- 語根의 -i- 에 關해서 그것은 IE 에서 ə 로 再構되는데 laryngeal 에서 變遷한 것이다. 그리하여 seṭ- 動根의 PIE 形態는 末位에 laryngeal 이 있는 것으로 再構하게 된다 : Skt. pavi- 는 PIE/pewX-/에서 變遷한 것이지 pewā-, pewə- 에서 由來한 것이 아니다. Skt. 의 5,7,9 動詞部類에는 n-infix 가 있다. 7 類에는 語根의 最後音韻으로 obstruent 가 있는 動詞로 우루어지고 있다 : rinákti</ly-n-ek^{w}-ty/; 7 部類는 語根의 末位音이 w이며(sṛnóti>/kl-n-ew-ty/), 9 部類는 語根의 末位音이 laryngeal 이다(punáti</pw-n-eX-ty/).

c. 原來 vocalic schwa(ə)가 假定되던 곳에 consonantal schwa 가 再構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Brugmann 法則으로[6] 알려져 있는 Ind-Ir. 의 音韻公式에 對한 어느 例外가 解消된다. 이 變化公式에 關해서는 많은 硏究가 發表되었고 一般的으로는 是認되지 않고 있으나 Pedersen 은 다음 같이 滿足할만한 公式化를 提示한바 있다. 즉 IE 短母音 o 가 r,l,m,n 앞에 있을 때는 開音節에서 Ind-Ir. ā 가 된다. 이 公式은 다시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 즉 PIE resonant 의 子音的 變異音앞에서는 PIE 短母音이 開音節에서 Ind-Ir.ā 가 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Gk. 와 Skt.間의 關係가 決定되는 것이다 : Gk. *δόρυ*, Skt. dā́ru. Gk. *φέρομες*, Skt. bhárāmas. cf. Gk. *πόσις*; Skt. páti (여기서는 長母音 ā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Pedersen 의 公式에 의해서도 說明되지 않는 形態는 laryngeal theory 에 의해서 밝혀진다. 一例로 Skt. janáya- 와 같은 使役形은 一人稱單數完了形에서는 二音節의 母音이 a 이지만 三人稱單數完了形에서는 항상 ā 가 나타난다(1st sg. cakára, 3d sg. cakāra). janáya- 와 같은 形態는 laryngeal 語基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낱말에서 pre-Ind-Ir. o 는 開音節에 있는 것이다.

d. PIE laryngeal 의 存在는 또한 Lithuania, Lettish, Serbo-Croatian 言語等의 intonation 에 의해서도 立證된다. 그 結果만을 紹介하면 Lithuania 語에서 acute accent 가 있는 音節은 PIE 의 laryngeal 이 있는 音節과 對應하며 circumflex accent 가 있는 音節은 laryngeal 이 없는 PIE 音節에서 發展한 것이다.

Lith. búti, Lett. bût, Serbo-Cr. biti 'to be'=PIE/bhewX-/, cf. bhávitum.

Lith. pílnas, Lett. pi*l*ns, Serbo-Cr. 'full'=PIE /pleX-/, cf. Lat. plēnus.

(B) IE 의 原來의 長母音은 短母音+laryngeal 의 反射形이다. 여기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證據를 들 수 있다.

a. 長母音이 있는 IE 의 낱말과 同一語源의 Hittite 語 낱말에서는 短母音뒤에 h:hh 가 後續되어 있다.

---

[6] Brugmann 法則 : Skt. ā 는 開音節에서 印歐諸方言의 o 에 對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說에 對해서는 많은 論爭이 展開되고 Brugmann 自身도 이 見解를 否定하게 되었다. 그러나 最近 이 說을 다시 들고 나와 그 有効性을 立證하려고 한 것이 Kurylowicz 이다.

b. Gk. *τίθημι, ἵστᾱμι, δίδωμι* 와 같은 形態에서 볼 수 있는 母音交替關係가 밝혀진다. 이것을 梵語의 ás-mi, Gk. *δέρω* 와 같은 動詞와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이 分析할 수 있다.

ás-mi *es- *τίθημι* *dhē-<*dhe?-

δερ-ω *der- *ἵστᾱμ* *ι stā-<*steA-

μέυ-ω *men- *δίδωμι* *do-<*deγ-

c. IE 의 長半母音에 關係된 여러가지 問題가 解決된다. laryngeal 앞에 resonant 가 있는 laryngeal 語基에서 接尾辭에 accent 가 있으면 그 語基에는 長半母音이 있다. Skt. gūrtá, Lat. grātus 는 從前에는 g^wṝ-tó- 로 再構되었으나 /g^wrX-tó-/에서 發展한 것으로 본다. Skt. pūrná, Lat. plēnus </plX-nó-/

d. 原來의 長重母音은 laryngeal 이 存在했음을 말해준다. Cretan Gk.에서 *ἀFέλιος* 는 短母音+laryngeal 가 長母音으로 收縮했던 것인데 여기 laryngeal 이 存在했음은 Lithuanian 語에서 同一語源의 Sáule 의 intonation 에 의해서 說明된다. 그리하여 Stk. sūra 에서 豫想되던 零階梯가 나타난다.

c. IEa 는 Aa 에서 發展한 것이며 Aa 는 또한 Ae 에서 發展한 것이다. 그 證據로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들 수 있다.

a. Hittite 語에서 ha- 로 記錄된 낱말과 同一語源의 IE 낱말에서는 頭位에 e 가 없고 오히려 a 가 보인다.

b. a- 는 母音交替에서 zero 와의 關係에 있다. Gr. *ἄFησι*, Skt. vāti 와 同一語源의 Hittite 語 hu-wa-an-te-eš 를 比較해보면 initial laryngael 의 確實한 證據를 얻을 수 있다. 여기 接尾辭가 接辭된 pre-IE 語根 /Aew-/〔Aaw-〕를 假想한다면 交替가 aw:a 임이 分明하고, a</Ae/는 w 앞에 保存되었고, 母音 e 의 消滅로 A 도 또한 消滅했음을 알 수 있다.

(D) Skt.有氣無聲停止音의 有氣가 laryngeal 에서 發展했을 경우에는 原來의 無聲停止音앞에서 消滅된다. 이러한 事實은 Skt. tísthati, Gr. *ἵταμεν*, Lat. sistit, Goth. standan 等의 關係를 說明해준다. 다시말하면 語根 /steA-/의 zero-grade 形態에서 有氣가 發達했으며 이것이 다른 形態에까지 擴大했던 것이다.

(E) Vedic Skt. 의 音量은 여러 경우에 laryngeal 을 假想하게 한다. 例를 보면 Vedic abhí 는 正常的으로 그 末位短母音을 維持하고 있으나, 같은 複合語에서는 長母音이 나타난다. 이러한 大部分의 複合語에서 第二要素는 頭位에 laryngeal 이 있는 語根이었다. abhīsat 는 abhíXes- 로 形成된 것이다.

이밖에 Gk.에서는 韻律關係에 의해서 어떤 낱말의 頭位에 原來 laryngeal 이 있었던 確實한 證據를 보여주고 있다. 頭位에 *λ,μ,ν* 가 있는 낱말들인데, 여기 頭位의 laryngeal 을 假想하게 되는 것은 다른 方言에서 同一語源語가 /Xen-/에서 發展된 /en-/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Skt. ámbhas, Gr. *νέφος*.

以上 極히 簡單하나마 laryngeal theory에 對한 現在까지의 여러 見解와 laryngeal의 存在를 是認할 수 있는 몇가지 立證例를 考察했다. 그러나 現代印歐語比較研究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는 Lehmann에 의한 몇가지 問題을 살펴보기로 한다.[7]

우리가 laryngeal이라는 用語를 使用해왔는데 여기에는 어느 明確한 概念規定도 없이 漠然히 傳統的인 術語를 그대로 使用했던 것이고 單純히 phonemic level에서 考察해왔다. 그러나 Sturtevant가 말한 것처럼 laryngeal이란 이경우 傳統的인 慣用的인 用語이며, palatal이나 velar와 같은 뜻으로 guttural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처럼 laryngeal도 그 原來의 뜻에서 너무 벗어나서 使用되고 있다. 그리고 PIE 研究에서 laryngeal이라는 用語는 諸方言에 直接的인 反射形이 없는 音韻들에 對해서 使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從來의 研究를 보면 laryngeal을 大部分 音聲的인 面에서 보았고 그 代表的인 例가 Möller이다. 現代 印歐言語學者가운데서는 Sturtevant는 各 laryngeal 音韻에서 primary phoneme을 擇하여 그 記號로 代表해왔다. 또 다른 學者들은 Saussure에 따라서 다만 純粹한 phonemic level에서만 考察해왔다. 그러나 Kurylowicz는 同化作用面에서 laryngeal의 變異音에 關한 推理를 했으나 音聲記號 없이 laryngeal을 整理하고 있다. laryngeal을 音聲·音韻 兩面에서 考察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으나 지금까지의 研究가 主로 phonemic level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그 理由가 資料 및 여기 關한 知識의 缺乏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漸次 여기 關한 知識의 範圍가 擴大되고 laryngeal에 關한 一般的인 記述이 可能하게 될 基礎를 얻게될 것이다.

이미 위에서 言及한바 있으나 Sturtevant는 Hittite 語의 orthography에 h와 hh가 있음에 注目하고 前者는 voiced velar spirant이며 後者는 voiceless velar spirant라는 見解를 發表한 바 있다. 그러나 Hittite 語의 orthography가 여러 모로 不完全하며 여기 의해서 決定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雜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기에 Sturtevant의 見解도 一面의 眞理는 있으나 이것을 全的으로 그대로 받아 들이기도 어렵다. 사실상 Sapir는 e-eš-와 같은 綴字는 〔ʔeš-〕와 같은 lnitial glottal stop을 表記한 것으로 解釋한바 있다. 이러듯 우리는 PIE에서 單純히 laryngeal이라고 부르는 것에 몇가지 相異한 音聲이 包含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Lehmann은 IE의 音韻體系가 各方言에서로 變動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 音韻體系의 構造的 基礎에는 역시 一種의 一貫性이 있지 않을까 假定한다. 그리하여 音韻變化의 pattern에는 다른 語族에서 보다 顯著한 類似性이 있는 것으로 보게된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laryngeal의 가장 큰 特徵은 그것이 消滅하면서 先行母音을 長母音化시키는 데 있는바, 이와 類似한 長母變化가 IE 方言에서 持續音의 消滅로 因하여 일어나는 것에 注目된다. 첫

---

[7] Lehmann, op. cit., pp. 103—108.

째 Skt. 에서 보면 그 持續音이 voiced sibilant 일 경우에 長母變化現象이 일어난다.

nīdá<*nɪzdo-(nest), rūḍhá<*ruẓḍha-<*rugdha-(climbed), voḍhum<*vaẓḍha-<*vagd-ha-(drive).

또 Gk. 에서도 이러한 持續音은 voiced sibibant 일 경우가 많다.

Ion-Att. *εἰμί*<*εσμι* (I am,), *τρήρων*<*τρασρων*(cowardly).

이러한 變化는 pre-IE 에서 /e·,a·,o·/가 /eXC/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假定과 同一한 것이다. 이러한 結果에 의해서 pre-IEX(laryngeal)의 變異音에는 持續音과 같은 調音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다음에는 다음 例에서와 같이 R(resonant)와 若干 다른 laryngeal pattern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eRC /bʰeyd-/ Skt. bhédati,

CeRX /pewX-/ Skt. puṇāti,

CeXR /leXw-/ Lat. lāvit,

CeXC /peXs-/ Lat. pāscō,

CeCX /metX-/ Skt. mathnáti.

CeCC 構造의 語基는 發見할 수 없기 때문에(稀少한 例이지만 CeCR 는 있다), laryngeal 은 obstruent 나 resonant 보다 더 多樣性을 띠운 型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別個의 構造型을 設定하게 되며 이때 laryngeal 은 摩擦音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본다.

Gk. 에서 頭化의 *ρ,λ,μ,ν* 와 結合하는 laryngeal 의 反射形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laryngeal 은 無聲이라고 決論을 얻게 된다. *σ*+*ρ,λ,μ,ν* 의 反射形은 *ρ-,λ-,μ-,γ-* 로 書記되는 것이 普通이나 옛 金石文에 의하면 위와 같은 結合에 있어서 생기는 resonant 는 無聲임을 보여주고 있다. Sapir 에 의하면 laryngeal/hxʔ/뒤에 오는 PIE resonant 의 反射形은 PIE/s/ 뒤에 오는 것과 같다. resonant 에 있어서의 變化는 無聲化에 있고 또 이 變化는 하나의 無聲持續音 *σ*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變化를 이루는 다른 持續音 또한 無聲이라고 보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例에 의하면 laryngeal 에는 無聲의 性格을 띠운 것이 있었음을 假想하게 된다.

(서울大學校 文理大)